

# 『麻疹篇』의 저술시기 분석\*

A Study on the Writing Year of the *Majinpyeon*

金重權 (Kim, Joong-Gwon)\*\*

## ◁ 목 차 ▷

1. 緒言	3.2 正祖說
2. 形態 및 內容分析	3.3 筆者의 견해
3. 著者 및 著述時期	4. 結言
3.1 숙종조의 劉以泰와 『麻疹篇』의 劉爾泰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에서는 『麻疹篇』의 저자인 劉爾泰가 세간에서 주장하는 숙종조의 劉以泰와 동일인인가 아닌가를 밝히고, 그 저술시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자 劉爾泰와 숙종조 劉以泰는 동일인이 아니며, 또한 『麻疹篇』의 저술시기는 헌종 12년(1846)으로 보았다.

따라서 劉以泰와 劉爾泰는 모두 경상도에서 활동한 훌륭한 의원임이 확실하다. 다만 劉以泰는 숙종조의 의원이며, 劉爾泰는 『마진편』, 『실험단방』, 『인서문견록』 등의 저자로 순종과 헌종, 철종조에 활동한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要語: 『마진편』, 『실험단방』, 유이태, 『인서문견록』

\* 본 논문은 2012학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 문헌정보학과 교수(jkim@gwangju.ac.kr)

접수일: 2012년 5월 30일 최초심사일: 2012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6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writing year of the *Majinpyeon*(麻疹篇) by Yu i-tae(劉爾泰).

*Majinpyeon*(麻疹篇) by Yu i-tae(劉爾泰) is the medical book about the measles, and it was first published by Park joo-heon in Jin-joo, Gyeongsangnam-do in 1931.

These days some people assert that these two kind of names are the same person, or a diferent person.

But they were found diferent persons.

Yu i-tae(劉以泰) is doctor of the Reign of the King Soogjong, and Yu i-tae(劉爾泰) is person of the Reign of the King Heonjong., They were taken the initiative in the treatment of the patient in Gyeongsangnam-do.

*Majinpyeon*(麻疹篇) was written by Yu i-tae(劉爾泰) in 1846 years.

As the result, these two people are most respectable person in San-cheong, Gyeongsangnam-do.

Key words: *Majinpyeon*, Yu i-tae

## 1. 緒 言

「麻疹篇」은 원학산인 劉爾泰가 저술한 의서로 마진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이용된 전문의서이다. 麻疹이란 용어는 홍역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홍역으로 사망한 어린이가 수 없이 많았다. 세종 때는 평원대군이 홍역으로 사망했으며, 인조 때는 함경도에 전염병 및 홍역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으며, 숙종 33년(1707), 34년(1708)에는 평안도, 경상도, 호남, 서울에 이르기까지 홍역으로 죽은 자가 수 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영조 5년(1729)에는 함흥에서 500여명이 죽었으며, 영조 12년(1736)에는 넷째 옹주가 죽기도 하였다. 영조 28년(임신, 1752)에는 왕세자, 세자빈, 원손에 이르기까지 홍역을 앓았다. 정조에 와서 홍역이 더욱 치열해지기 시작하여 정조 10년(1786)에는 세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어린이들이 홍역을 앓자 홍역 방지책으로 제사를 지내거나 홍역 구제대책을 세우고 효과적인 처방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의원들은 이 병으로 고통 받고 죽어가는 소아들을 위해 의원들은 예방과 치료가 급선무였으며, 의서편찬과 보급에 앞장서야 했다. 당시에 나온 책들이 趙廷俊의 「及幼方」(1745, 영조 21년), 任瑞鳳의 「壬申疹疫方」(1752, 영조 28년), 李獻吉의 「麻疹方」(1775, 영조 51년), 丁茶山 「麻科會通」(1798, 정조 22년), 李元豐의 「麻疹彙成」(1798, 정조 22년) 등이 간행되어 홍역이나 두창에 관한 치료 및 예방에 이용되었다. 이를 볼 때 홍역에 관한 의서는 영·정조 때 가장 많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麻疹篇」은 언제 저술되었는지 그 저술시기와 저자의 동일인 여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숙종조의 어의 劉以泰와 「麻疹篇」의 저자 劉爾泰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으며, 그 결과 이 책의 저술년대를 숙종조로 보는 견해와 정조조로 보는 견해로 양분되고 있다. 이 책이 저술된 이후 그 후손에게 전해 오다가 1931년 경상도 진주에서 목활자로 빛을 보게 되었다. 분량은 49장에 달하지만 저자는 지방의 한 의원으로서 홍역 부문에 전심하여 경험방을 위주로 저술한 뒤 당시 고통에 빠진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앞장섰다고 한다. 그러나 숙종조의 劉以泰는 생몰년도가 확실하여 그의 자취를 알 수 있지만 「麻疹篇」의 저자 劉爾泰는 생몰년도의 근거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저술시기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근거와 『麻疹篇』의 내용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저술년도 및 동일인 여부를 해결하는데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 2. 形態 및 內容分析

이 책은 서문에서 밝혔듯이 조선시대 원학산인(猿鶴山人) 유이태(劉爾泰)가 저술한 홍역에 관한 전문의서이다. 저자는 麻疹이 옛날에는 무슨 종류의 병인지 몰랐으며, 요즈음도 매년 발생하여 고을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그 연유를 모르고 고심하던 중 명대의 공운림(龔雲林)과 마감산(馬邯山)의 처방을 참고하고 고을에서 경험한 처방들을 모아 1편으로 만들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 후 그의 후손이 필사본으로 전해 오다가 종이 슬어 없어질까 염려한 나머지 박주헌(朴周憲)에게 넘겨 1931년과 1934년에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회춘현약방(回春軒藥房)에서 간행하였다. 이 책의 형태적인 특징을 보면 총 49張으로 1책이며, 변란(邊欄)은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廓)은 18.0×14.3cm로 9行18字, 주(注)는 쌍행(雙行), 어미는 내향화문어미(內向二葉花紋魚尾), 책의 크기는 25.7×18.0cm이다. 권두에는 병오년(丙午年)에 쓴 劉爾泰 자신의 서문과 경오년(庚午年; 1930년)에 쓴 박주헌(朴周憲)의 서문이 있다.

표지서명과 판심제는 <마진편(麻疹篇)>이라 했으며, 판권지에는 “昭和 九年 六月 十日 印刷”, “昭和 九年 月 日 發行”이라는 간기가 있다. 간기 다음 항에 “定價金壹圓也”라는 책의 가격과 그 옆으로 저작자 겸 발행자 박주헌(朴周憲), 인쇄인 정규용(鄭圭鎔), 발행소인 회춘현약방(回春軒藥房)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마진편(麻疹篇)』의 내용은 마진통론(麻疹通論), 치진대략(治疹大略), 마진예방(麻疹預防), 제증(諸症) 초열삼조(初熱三朝), 발반삼조(發癍三朝), 소반삼조(消癍三朝), 순험역(順險逆), 통치(通治), 음식(飲食), 찬물(饑物), 금기(禁忌),

상풍(傷風), 한갈음수(汗渴飲水), 번조(煩燥), 섬어(諛語), 천수(喘嗽), 후통실음(喉痛失音), 구토복통(嘔吐腹痛), 회충통(蛔蟲痛), 설사(泄瀉), 이질(痢疾), 실혈(失血), 불식(不食), 창독(瘡毒), 협단협반(夾丹夾癍), 부종창만(浮腫脹滿), 학질(瘡疾), 안질(眼疾), 내상(內傷), 중풍(中風), 잉부(孕婦), 마진변증(麻疹變症), 마진방(麻疹方) 등으로 구성되었다.

<마진통론(麻疹通論)>에서는 두창은 五臟에 속하여 陰에 해당하고 마진은 六腑에 속하여 陽에 해당하고, 마진은 갑자기 돌변하여 생명이 지장을 주는 증상 이므로 치료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 등 마진과 두창의 차이점, 마진의 원인, 증상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치진대략(治疹大略)>에서는 마진을 앓고 있을 때 주의사항과 치료법, 처방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마진예방(麻疹預防)>에서는 소아는 모든 병이 열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남자는 신화(腎火)로 여자는 간화(肝火)로 인해 발생하니 그에 따른 예방법과 처방(消毒保嬰丹, 太乙神明丹, 三豆飲, 生漆과 鷄子清, 熊膽, 蚯蚓糞) 등을 기록하였으며, 마진 발생 후 일자별로 초열삼조(初熱三朝), 발반삼조(發癍三朝), 소반삼조(消癍三朝)로 구분하여 처방과 단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마진변증(麻疹變症)에서는 마진에 대한 증상을 설명하고, 마진방(麻疹方)에서는 소독보영단(消毒保嬰丹), 태을신명단(太乙神明丹)에서부터 현삼지황탕(玄蓼地黃湯)까지 93개의 처방을 제시하고 그 제조 방법 및 복용법, 주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 3. 著者 및 著述時期

본 책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숙종조의 유이태(劉以泰)와 「마진편(麻疹篇)」의 저자 유이태(劉爾泰)를 동일인으로 보는 견해이다. 동일인으로 볼 경우 이 책의 저술년도도 숙종조로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저술 년도 추정이 잘못 됨으로 인하여 그 이후의 모든 인용자들이 그대로 인용하여 밝히고 있으므로

정설로 굳어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당대에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며, 또한 실존했던 사람이 없어지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숙종조의 유이태(劉以泰)와 『마진편(麻疹篇)』의 저자 유이태(劉爾泰)가 동일인지의 여부와 『마진편(麻疹篇)』의 저술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 3.1 숙종조의 劉以泰와 『麻疹篇』의 劉爾泰

일부에서 숙종조의 유이태와 『麻疹篇』의 저자 유이태(劉爾泰)를 동일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숙종조의 劉以泰(1652-1715)는 고조부(高祖父) 의사공(義士公) 유명개(劉名蓋, 1548-1597)의 후손으로 1652년(숙종 3) 경남 거창군 위천면 사마리(慶南 居昌郡 渭川面 司馬里)에서 태어났다. 성장한 후 경남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등지에서 의술활동에 전념하다가 1715년(숙종 41)에 사망하였다. 묘소는 경남 산청군 생초면 갈전리 산35-1 번지에 있다. 그의 이름이 조정에까지 널리 알려져 숙종이 초빙했던 기사가 보인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39년(계사년) 12월 16일에 유이태(劉以泰)가 내의원에서 재촉하여 전주에까지 왔다가 칭병하고 오지 않았다하여 중벌을 주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sup>1)</sup>

그의 호는 신연당(新淵堂), 자는 백원(伯源), 본관은 거창이다. 저서로는 신연당 문집이 있다.

그러나 『마진편(麻疹篇)』의 저자 유이태(劉爾泰)는 주장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 다만 그의 저서 『마진편(麻疹篇)』, 『실험단방(實驗單方)』, 『인서문견록(麟西聞見錄)』 등에 호와 이름만 남겨지고 있다. 그의 호는 『마진편(麻疹篇)』에서는 원학산인(猿鶴山人), 『실험단방(實驗單方)』에서는 인서(麟西)로 표기하여 두 개의 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이 두 이름이 동일인라고 주장하려면 우선 자신의 이름을 동음(同音)이라 해서 한자를 이자(異字)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지 조사되어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1) 朝鮮王朝實錄. 肅宗 39年 12月 己丑(16日) 卷54. 冊40. 522.

할아버지나 부모가 작명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가적인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유이태(劉以泰)의 가계보와 문집, 의약동참청선생안(議藥同參廳先生案),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숙종 39년(1713) 12월 16일조,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에 유이태(劉爾泰)가 아닌 유이태(劉以泰)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유이태(劉爾泰)와 동일인으로 보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동일인을 주장하려면 유이태(劉爾泰)로 기재된 숙종조의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3.2 正祖說

김두중 선생은 본 책의 저술연대를 정조 10년(1786)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왜 이와 같은 연도가 나왔는지 그 근거가 확실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자의 서문년도와 당시 홍역의 난무했던 때를 연관시켜 확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본 마진편의 내용분석과 실록에 기재된 마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여 각각 다른 시기임을 밝히고자 한다.

정조 10년(1786) 병오설(丙午說)에 대한 주장은 저자가 경험했다고 하는 임신년을 영조 28년인 1752년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해 10월에는 전국에 홍역이 번졌으며, 왕세자 및 세자빈, 원손까지 홍역을 앓아 비상이 걸린 해이다. 순조 2년(임술, 1802)에도 홍역이 난무하여 “승상(陞庠)하는 과시(課試)를 임신년(1752, 영조 28) 홍역 때의 준례에 따라 물려서 할 것을 대사성 이노춘(李魯春)의 말에 따른 것이었다.”<sup>2)</sup>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면 영조 28년 임신년 홍역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 후 병오년은 정조 10년(1786)으로 동년 4월 10일에는 중앙관서와 지방에 까지 일제히 홍역을 비는 제사가 왕명으로 이루어진 일이 있었으며,<sup>3)</sup> 4월 14일에는 전국에 홍역이 확산되자 전의감(典醫監)과 혜민서(惠民署)에게 홍역에 적당한 약제의 처방을 연구하여 각 고을에 나누어

2) 朝鮮王朝實錄. 純祖 2年 11月 丁亥(20日) 卷4. 冊47. 444.

3) 朝鮮王朝實錄. 正祖 10年 4月 癸未(10日) 卷21. 冊45. 564.

주도록 하였다. 5월 3일에는 왕세자가 홍역을 앓아 8일 만인 11일에 사망하였다. 결국 전국에 홍역 비상이 걸려 홍역에 관련된 연구와 저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경상도 관찰사 정창순(鄭昌順)이 칠곡사람 박상돈(朴尙敦)의 『진역방(疹疫方)』과 충청도 관찰사 김광묵(金光默)이 진천의 남기복(南紀復)이 엮은 『진역방(疹疫方)』을 정조에게 바치자 즉시 전의감(典醫監)과 혜민서(惠民署)에 내려 홍역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인지 고찰하고 사용여부를 보고하라 하였다. 그 결과 혜민서에서 충청도의 疹疫方은 의논을 모은 결과 유통성이 없으므로 논외로 하고 경상도의 진역방은 『두과휘편(痘科彙編)』과 『마진치법(麻疹治法)』을 위주로 하여 가감한 것으로, 허실(虛實)을 분별하고 시증을 지적하였으며, 잡증(雜症)에 있어서는 상당히 상세하고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의서이므로 한문과 언문을 혼용 인출하여 팔도에 내려 보내도 좋다고 하였다.<sup>4)</sup> 그 해 6월 29일 홍진구료를 마무리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 등으로 정조 10년(병오, 1786)에 유이태(劉爾泰)의 『마진편(麻疹篇)』 저술이 이루어 졌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 3.3 筆者의 견해

먼저 유이태(劉以泰)와 유이태(劉爾泰)는 각각 다른 인물임을 밝혀둔다. 즉, 마진편의 저자가 숙종조(1674-1720)의 유이태(劉以泰)가 아닌 순조(1800-1834)와 헌종(1834-1849), 철종(1849-1863 재위)년간의 유이태(劉爾泰)라는 주장이다. 만약 숙종조의 유이태(劉以泰)임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저자가 쓴 서문의 년도(丙午年)와 숙종조 유이태(劉以泰)의 생몰년도(1652-1715)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문 말미에 “歲在 丙午 下澣 猿鶴山人 劉爾泰自記”라는 기록이 있는데, 병오년(丙午年)은 1666년(현종 7), 1726년(영조 2), 1786년(정조 10), 1846년(헌종 12), 1906년(고종 43)에 해당된다. 숙종조 설(肅宗朝說 1674-1720 재위)인 유이태(劉以泰)의 생몰년도가 앞에서 밝힌 것처럼 1652-1715년이라면 1666년은 유이태(劉以泰)가 14살 때이며,

4) 朝鮮王朝實錄. 正祖 10年 5月 辛未(28日) 卷21. 冊45. 571.

1726년 병오년은 사망 후가 된다. 따라서 서문 년도로는 유이태(劉爾泰)의 숙종조 설(肅宗朝說)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숙종조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문년도의 오류인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서문 년도의 오류라면 간행당시의 필사본을 찾아야 한다. 박주헌(朴周憲)이 간행할 당시 필사본을 저본으로 하였으므로 병자년(丙子年, 1696)을 병오년(丙午年)으로 잘못 식자했을 수도 있으나 거의 희박하다.

또한 정조설 역시 저자가 임신년에 경험했다는 근거로 저술년도를 정조 10년(1786)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저술년도를 정조 10년(1786)이 아닌 현종 12년(1846)으로 분석하였다. 그 근거로 본 의서에 기록된 내용 중 “통치(通治)”편에서 “山淸縣有一刹, 壬申冬, 閤梨患疹皆飲井水, 渴則復飲, 而無一人見敗者”이란 문장이 있다. 이는 저자가 壬申年에 산청현에서 경험했던 내용으로 본다면 임신년은 1692년(숙종 18), 1752년(영조 28), 1812년(순조 12), 1872년(고종 9)에 해당된다. 이 책의 저술은 그 이후 병오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임신년(1692, 숙종 18) 이후 병오년은 1726년(영조 2), 1786년(정조 10)과 1846년(현종 12)이다. 그런데 산청현은 영조 43년(1767) 산음현(山陰縣)에서 7歲 女兒 生男事件으로<sup>5)</sup> 산음(山陰)을 산청(山淸)으로 현명(縣名)을 바꾸었으며,<sup>6)</sup> 고종 33년(1896)에 군(郡)으로 승격(昇格)되었다. 다시 말하면 산청현이란 고을 명칭은 1767년부터 1896년까지 130년간 사용되었다. 저자가 산청현에서 경험했다는 임신년은 산청현의 명칭 변경 이후에 해당된 순조 12년(1812), 1872년(고종 9)으로 압축된다. 따라서 이 책의 서문년도는 1812년 이후의 병오년이므로 정조 10년(1786)이 아닌 현종 12년(1846)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의 근거를 들면 그의 저서 『실험단방(實驗單方)』이다. 본 의서에 다음

5) 朝鮮王朝實錄. 英祖 43年 윤7月 癸巳(2日) 卷109. 册44. 259.

6) 朝鮮王朝實錄. 英祖 43年 윤7月 辛酉(30日) 卷109. 册44. 262.

“上祇迎太廟朔祭香於崇政殿庭。教曰：“鄒、魯之鄉，其雖縣名，既思之後，其宜較正。安陰山陰不過接界，而頃有希亮，今有淫婦。有蛾眉山故三蘇應焉，名豈忽也？縣名釐革亦非一也。安陰改以安義，山陰改以山淸，其令該曹付標啓下。”

과 같은 서문과 년도가 있다. “余觀人之一生無病者蓋鮮矣 然使病者能知其調治之方則必不至損傷之患可不慎歟 余以平日雜病之經驗所得聞之單方隨錄於一冊以備來後救療之方 雖非醫家全書之祥 亦有補於人生日用之萬一云 赤陽暮春 下澣 麟西 劉爾泰.”

이와 같이 그의 서문 말미에 ‘적양모춘(赤陽暮春)’이란 서문년도가 기재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적양모춘(赤陽暮春)’을 기축년(1709) 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양(赤陽)은 적양(赤羊)으로 ‘붉은 양의 해’를 의미한다. 천간(天干) 중 병(丙)과 정(丁)은 붉은 색에 해당하므로 정미년(丁未年)을 의미한 듯하다. 정미년은 1727, 1787년, 1847년, 1907년이다. 따라서 『실험단방』은 1709년이 아니라 『마진편(麻疹篇)』 저술 다음해인 1847년에 저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4. 結 言

본고에서는 『마진편(麻疹篇)』의 저자인 유이태(劉爾泰)가 세간에서 주장하는 유이태(劉以泰)와 동일인 여부를 밝히고, 그 저술시기를 분석하였다.

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마진편(麻疹篇)』은 유이태(劉爾泰)가 저술한 홍역관련 전문의서로 1931년 박주현이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2. 저자 유이태(劉爾泰)와 숙종조 유이태(劉以泰)의 관계는 확실한 근거가 발견되기 전에는 서로 다른 인물로 볼 수밖에 없다.

3. 저술시기에 있어서도 숙종조와 정조조(1786)설이 있으나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 저술시기가 병오년(1726)이라면 저자의 사후가 되므로 숙종조의 인물이 아니라는 근거가 된다.

임신년에 마진이 유행했다는 것은 『마진편(麻疹篇)』, 『마과회통(麻科會通)』,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저자인 유이태가 “산청현에서 임신년 겨울에 어떤 사찰에서 승려가 우물물을 마시고 갈증나면 다시 마시곤 했더니 죽은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山淸縣, 有一刹, 壬申冬, 闍梨患疹, 皆飲井水, 渴則復飲, 而無一人見敗者.)”한 것은 본인의 경험인지 전해오는 말을 듣고 기록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리고 산청현(山淸縣)의 명칭은 산음(山陰)으로 사용하다가 1767년부터 산청현으로 변경하여 1896년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면, 지명이 변경 후의 임신년은 순조 12년(1812)이다. 따라서 그 후의 병오년은 헌종 12년(1846)이므로 이 시기를 저술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유이태(劉以泰)와 유이태(劉爾泰)는 모두 경상도에서 활동한 훌륭한 의원임이 확실하다. 다만 유이태(劉以泰)는 숙종조의 의원이며, 유이태(劉爾泰)는 「마진편(麻疹篇)」, 「실험단방(實驗單方)」, 「인서문견록(麟西聞見錄)」 등의 저자로 순조(1800-1834)와 헌종(1834-1849), 철종(1849-1863 재위)조에 활동한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麻疹篇」.
- 「實驗單方」.
- 「西聞見錄」.
- 「朝鮮王朝實錄」.
- 「承政院日記」.
- 「居昌劉氏世譜」.

